

# ‘Y프로젝트’ 내년 첫 사업은 ‘영산강 맑은물 회복’

예산 삭감 뒤 부활 사업 본격화  
용역후 물역사 체험관 설계공모  
송산섬 테마놀이터 조성도 착수  
“핵심사업 위주 계획·설계 추진”

민선 8기 광주시 핵심 공약인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의 내년도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됐다. 예정위에서 부활한 가운데 내년 첫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의 내년 첫 번째 사업으로 ‘영산강 맑은물 회복사업’을 위한 용역’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영산강의 수질개선 문제가 전체 사업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13일 시의회 예결특위는 총 6조9042억원 규모의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특히 당초 67억원으로 편성된 예산 가운데 22억원이나 상임위에서 삭감돼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던 신활력추진본부의 Y프로젝트 예산이 가까스로 되살아나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당초 채은지, 박필순 시의원 등은 해당 사업 심의 과정에서 “3700억원대 대형사업임에도 투자심사 절차를 건너뛰어 예산부터 편성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일부 체험, 물놀이 시설의 사업성 부족은 물론 하상여과수(강바닥 지하 모래층 아래의 물) 개발공법을 통한 적정 유량(1일 10만톤) 확보 문제, 수질 개선과 취수방

안에 대한 부서 간 이견, 미흡한 용역보고서, 역대급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하지만 삭감액 중 60% 가까운 13억원이 부활되면서 내년 사업 예산으로 총 58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최종삭감된 사업은 영산강 도심생태숲길 조성(6억원)과 서봉 수상레저기반 조성(3억원) 등이다.

Y프로젝트는 영산강 상류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해 가뭄 때는 식수, 평상시에는 영산강 유지용수로 활용하고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378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광주시는 당초 9개 사업, 67억원에서 최종적으로 7개 사업, 58억원으로 줄었지만 핵심사업 위주로 기본계획과 설계를 추진

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사업 실행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맑은물 회복을 위한 수질개선과 수량확보 △영산강과 황룡강 생태여가 레저라인 조성 △Y100리길 연결 사업 등 3가지로 나눠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첫 사업은 ‘영산강 맑은물 회복사업’으로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예비타당성 통과가 필요한 대규모 중장기사업인 만큼 기본계획 용역비 11억원을 투입, 순서대로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이어 영산강 익사이팅 골짜미라인의 경우 핵심사업인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 자연형 물놀이장, 인공서핑장 조성이 필요한 만큼 설계비 24억원을 투입해 설계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황룡강 생태여가 레저라인의 경우 송산섬에 테마놀이터, 플로팅수영장 등을 조성해 어린이를 위한 섬으로 특화하기 위해 설계비 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업 축소가 있었던 ‘Y100리길’의 경우 연결의 핵심사업인 Y-브릿지 디자인 공모에 8억원을 투입해 디자인 방향과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의회 쪽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해 예산을 부활 시킨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Y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강에서 여가와 레저활동을 즐기고, 더 나아가 관광과 재미 있는 강으로 변화시켜 영산강을 중심으로 큰 광주, 미래의 광주로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병하·김은지 기자

## “통합기관 기능·열악한 인력 ‘해결 과제”

광주일자리재단 출범 100일

직원 20명 중 연구인력은 2명 뿐  
재단 “내부 효율화계획 수립 집중”

광주시의 공공기관 구조 혁신에 따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을 통합해 설립된 광주경제진흥원상생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 출범 100일을 맞았다.

재단은 출범 이후 외부적 성과보다는 내부 경영 효율화를 위한 계획 수립에 집중했다고 밝혔지만 통합기관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 열악한 연구 인력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14일 광주시와 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최근 ‘경제+일자리 통합기관 비전 및 CI 공유회’를 갖고 앞으로의 비전과 새롭게 제작한 CI를 발표했다. 또 지역사회를 이끄는 이들과의 대담을 통해 수요혁신을 통한 디지털 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재단은 출범 당시 성격이 다른 두 단체의 통합과 관련한 우려와 내부 분열 등 부정적인 시선을 고려해 재단 비전의 초점을 경영 효율화에 맞췄다.

앞서 지난 10월 광주시의회 채은지(비

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경제고용진흥원과 상생일자리재단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11월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주시의회 홍기월(더불어민주당·동구1) 의원과 박수기(민주당·광산5) 의원이 연구 인력 부족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재단은 지역산업 진흥과 중소기업 성장을 주도하는 노동·상생형 일자리 관련 전문기관이지만 연구 인력은 단 2명뿐”이라면서 “지역 경제를 위해 양질의 연구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 의원 역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이후 새로운 지역 일자리 모델을 발굴해야 하는데 20여명 가까운 재단 직원 중 연구 인력은 2명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력부족에 대한 총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아직 6명의 연구인력 총원 중 2명만 일하고 있다”면서 “인력 총원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1명을 총원할 예정”이라고 말



광주자원봉사자대회 강기정 광주시장이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광주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했다. 이어 “내년 1월 인사 개편이 실시되는데 그 이후부터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성 초대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디지털 사업이 강조되고 확장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대표는 취임 이전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을 역임했는데 당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를 총괄했다. 이에 재단의 내년 신규사업 목록에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이 포함돼 있다.

광주지역 대학 관계자는 “대우위니아 사태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 사업 비중을 늘리는 게

시급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 관계자는 “지난 100일간의 내부 경영 효율화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연내에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에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지역 대표 수요혁신 기관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 용서와 화해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 여순사건 유적 도록

‘역사 유적지로 보는 여수·순천 10·19사건 그날의 현장’ 발간

‘여수·순천 10·19사건’ 75주년을 맞아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등 그날의 현장 93곳 수 차례 답사, 학계·연구자 고증 거쳐 420여 장 고화질 사진으로 묶어 펴내

